

농어촌 101곳 체험마을 운영... 휴양마을 매년 10곳 '착착'

전남도 휴양전원마을·은퇴도시 조성 박차

年수만명씩 농어촌체험 민박 등 부수입 무안·진도 귀농인 전원마을 속속 건립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촌' 그 자체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전남도 농어촌체험마을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벼를 베고, 수확하는 농사일을 체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도시민에게 선보이고 민박과 농수산물 판매로 부수입도 올리고 있다.

또 귀농 등 다양한 지원이 있는 휴양전원마을도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인 혜택이다. 귀농·귀촌을 준비하면서 농어촌체험마을과 휴양전원마을 등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먼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농촌의 삶'이 새로운 수입원=전남도는 현재 농촌과 어촌 등 101곳에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회관과 폐교 등을 마을공동시설로 활용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체험 마을 중 하나인 장흥 수문마을, 함평 석두마을, 강진 서중마을 등 3개 어촌체험마을은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 주최 '2012년 어촌체험마을 전진대회'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되기도 했다.

장흥 수문마을은 풍광이 아름답고 곳곳에 기암절경과 오염되지 않은 맑은 바다가 펼쳐져 있다. 매년 정남진물 축제와 연계해 키조개축제를 열고 있다. 키조개를 테마화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연간 19만여명의 관광객을 유치, 2억3700만원의 체험소득을 올리고 있다.

함평 석두마을은 해안을 따라 형성된 마을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이다.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개마기 체험, 참숯잡장어 잡기체험 등 광활한 갯벌체험을 해 연간 3만 9000여명이 다녀갔다.

강진 서중마을은 청정해역이 내륙으로 들어온 고갈모양의 강진만 중심부이자 강진군 최남단에 위치한 천혜의 아름다운 항구다. 청자빛기 체험장, 자연식 감전조 체험 등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해 1만5000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했다.

이처럼 서·남해의 아름다운 리아스식 해변을 배경으로 조성된 29개의

어촌체험마을에서는 마을마다의 별미음식과 볼거리, 맨손으로 고기를 잡는 개마기 체험 등 특색 있는 치유(힐링) 체험거리가 풍성하다.

또 농촌체험마을에서도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각종 체험과 한옥에서의 하룻밤 잘 수 있는 민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마을별로 체험프로그램 전담 운영인력이 배치돼 체계적으로 양질의 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거지 걱정은 휴양전원마을에서 해결=귀농·귀촌을 결심할 때 현지인들과의 융화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이지 않는 뒷세를 극복하며 현지인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일이 그리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귀농을 결심한 많은 사람들과 모여 사는 것

■ 휴양 전원 마을 2012년 시범 사업 현황

마을명	사업비 (백만원)	부지면적 (㎡)	세대수
구례 관의	11482	45285	44
곡성 죽곡	17405	60336	100
순천 출신	30271	236019	151
진도 산월	22982	115084	184
고흥 금산	8742	47551	33
해남 무교	12670	59961	80
영광 대마	64000	52431	652
영광 녹사	64060	702441	654
여수 상봉	12213	48272	59
무안 통합	13539	52585	70

도 농촌에 적응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전남도 휴양전원마을은 국내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도시민의 귀촌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와 지자체가 마을 기반시설을 설치해주고 주차장, 공원 등의 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해 준다. 마을 규모에 따라 36억원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며 마을의 크기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진다.

전남도는 현재 55개소 유치를 목표로 지역 선정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10개소를 선정했다. 또 올해 10개소를 추가 선정한다.

지난해 선정된 곳은 여수 상봉, 구례 광의, 진도 산월, 순천 출신, 곡성 죽곡, 고흥 신령, 해남 무교, 영광 대마, 영광 녹산 등이다.



전남도 체험마을과 휴양전원마을 등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민박과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부수입을 올리고 있는 담양군 대덕면 무월 체험마을의 전경. /니평기자 mjna@kwangju.co.kr

진도 산월지구(152세대) 등 4개 지구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투자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또 해남 무교(24세대)는 부지 매입을 준비하고 있고, 고흥 금산은 민간 개발자가 참여해 수익형 관광 펜션단지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무안 월선 은퇴도시와 진도 명랑지구 휴양전원마을 455세대를 건립키로 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진도군은 명랑지구와 산해뜰지구에 대해 군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기반 조성을 해 택지를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인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명랑지구는 배산임수형의 남향으로 아름다운 바다를 접하고 있는 택지다. 군내면 일원 6만9106㎡에 94억 원을 투자해 한옥형 주택 53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다. 산해뜰지구는 진도를 산월리 일원 11만 5084㎡에 219억 원을 투자해 전원주택 152세대가 건립된다.

또 가산토건은 무안 정계 월선리 일원 48만 1200㎡ 부지에 505억 원을 투자해 250세대 규모의 한옥 및 전원주택을 건축할 계획이다. 생활권의 시설로는 힐링센터, 건강산책로 등이 들어선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사를 통해 수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을 귀농·귀촌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면서 "노년을 함께할 수 있는 이웃과 힘을 모아 마을을 만들어 가는 휴양전원마을도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권유 할만 하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진짜 귀농을 꿈 꾸다면 준비하고 공부하세요

성공사례와 유의 사항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귀농·귀촌을 실패로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다. 전문가들은 농촌으로 이주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먼저 준비한 뒤 실행에 옮겨야 실패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먼저, 귀농은 농촌과 농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작목을 선택한 뒤 알맞은 땅을 구입하거나 임대해야 하며, 관련 농기계도 마련해야 한다. 준비해야 할 것이 많고, 농작물의 가격 변동폭도 크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분석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귀농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다. 우선 자신과 맞는 작목을 선택하고, 현장 실습을 통해 재배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귀농을 결심한 사람들에게 귀농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텃밭이나 주말농사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한다. 집 옥상이나 주변 텃밭을 구해 직접 농사를 지어보면서 다양한 경험부터 하라는 것이다.

또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아늑한 전원생활을 하겠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 태풍에 농작물이 모두 휩쓸려가도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정신적 무장'도 필요하다.

귀농을 너무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농사를 지어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농촌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내가 직접 재배한 신선한 농작물을 먹을 수 있는 기쁨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다.

귀촌도 마찬가지다. 농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그곳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 또 귀촌의 경우, 무작정 '고향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건강상태와 경제력 등을 고려해 가장 맞는 곳을 찾아야 한다. 몸이 아픈데 병원이 없는 곳으로 귀촌하는 것은 맞지 않고, 돈이 없는데 물가가 다소 비싼 곳으로 옮기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농촌 경험서 자금까지... 귀농 팍팍 밀어드립니다

지원기관과 프로그램

귀농·귀촌은 철저한 사전 준비가 성공의 열쇠다. 농촌공동화 현상의 심화로 정부와 지자체의 귀농·귀촌 지원프로그램과 자금 지원도 풍부하다. 농촌행을 결심하기 전에 먼저 농촌을 경험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정착을 위해 귀농·귀촌학교를 열고 있다. 이곳에서는 농업기계, 과수 재배기술 등을 배울 수 있다.

또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자신들이 연구·개발한 버섯 재배 기술을 보급하는 '녹색산림 버섯

학교'를 운영했다. 버섯재배법 교육, 버섯균의 생애와 생육 원리를 알려주는 실용실습 및 현장교육을 통해 버섯 재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밖에 광주카톨릭대 평생교육원의 '광주·전남 귀농학교' '도시농부 교실',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센터와 전국 귀농운동본부, 귀농·귀촌 종합센터 등 사이트에서도 귀농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귀농인에게 무료로 농촌 민집을 소개해 주는 전남도 귀농·귀촌종합안내 홈페이지(http://jn-farm.jeonnam.go.kr)도 유용하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주택, 축사, 시설하우스, 종로 농기계의 매물 정보 등을 볼 수 있다.

귀농귀촌자금은 농협과 수협을 통한 대출형태로 지원한다.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하거나 지정된 곳의 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업교육도 인정하며 사이버교육의 경우에는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해준다.

대출한도는 농어업 창업자금의 경우 세대당 2억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낙농분야의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취득과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해 50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농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의 경우에는 세대당 4000원까지 가능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경축 백운동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완료!

2차조합원
150세대
 모집중!!

- 1 믿을 수 있는 시공 현대엠코(주)
- 2 안전한 자금관리 한국자산신협(주)
- 3 고품격 단지배치 실속형 설계
- 4 교통, 학군, 생활 자연적인 요충지

총 527세대

견본주택
성황리 개관중!!

모/집/문/의

1899-1334

· 시행사 : 백운동지역주택조합 · 시공사 : 현대엠코(주) · 자금관리 : 한국자산신협(주) · 업무대행 : (주)지오신업개발